

1.글로벌 채권

- * <뉴욕 채권> 미 국채가,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기대 & 장기물 입찰에서 예상보다 강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하락 마감
- 국채가는 지표 발표가 없어서 장기물 입찰에 주목하는 가운데 유가 급등에 따라 지난주보다 하락. 다만 유럽장에서 확대한 낙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줄이는 모습.
- 오후 들어 10년물 200억 달러 입찰에서도 수요가 최근 평균에 못 미칠 정도였음에도 낙폭을 소폭 늘리는데 그쳐
- 10년물 낙찰금리는 연 2.458%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. 시장거래자들은 2.48% 수준을 예상.

[미국]

2y	1.14%	(+0.8bp)
5y	1.89%	(-0.5bp)
10y	2.47%	(+0.4bp)...2015년 6월 26일 이후 최고치
30y	3.15%	(+0.1bp)...2015년 7월 이후 최고치

[기타 10Y물]

영국	1.46%	(+1.5bp)
독일	0.39%	(+3.3bp)
프랑스	0.86%	(+5.4bp)
이탈리아	1.99%	(-4.5bp)
스페인	1.49%	(-1.6bp)
그리스	6.60%	(+2.9bp)

2.글로벌 증시

- * <뉴욕 마감> 미 통화정책 앞두고 혼조...다우 6일째 최고치
- 다우, 대통령 선거 이후 15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
- FOMC 정례회의 앞둔 경계에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지는 않아
- * <유럽 마감> 伊 정치불안·美 금리인상 경계감에 일제 하락
- * <상하이 마감> 보험사 투자 규제에 급락...선전 4.86% ↓
- * <도쿄 마감> 닛케이, 19,000대 안착...엔저 훈풍

DOW30	19796.43	(+0.20%)...6일째 최고치
NASDAQ	5412.54	(-0.59%)
S&P500	2256.96	(-0.11%)
NIKKEI225	19155.03	(+0.84%)
SHANGHAI	3152.97	(-2.47%)
FTSE100	6890.42	(-0.92%)
DAX30	11190.21	(-0.12%)
CAC40	4760.77	(-0.07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12월 FOMC 정례회의 앞두고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자재 통화 강세로 하락

유로/달러	1.0633	(+0.0074)
유로/엔	122.30	(+0.62)
달러/엔	115.01	(-0.22)
달러/위안	6.9086	(+0.0114)
NDF	1165.00 / 1166.00원...2.80원 하락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OPEC 비회원국 감산 동참에 2.6% 상승

* <국제 금값>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달러 약세에 0.3% 상승

WTI	52.83	(+2.60%)...지난해 7월 이후 약 17개월래 최고
COMEX금	1165.80	(+0.30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2027.24	(+0.13%)
코스닥	603.08	(+1.47%)
원/달러	1168.20	(+2.30)
KTB	109.31	(+0.04)
LKTB	124.32	(+0.13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. 이번 주 열릴 미국과 한국 통화정책회의의 경계심이 작용함.

-글로벌 장기물이 상승하면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는데, 적어도 장기물은 글로벌 금리 흐름에 연동된 걸로 보임.단기물은 그동안 너무 올랐던 데 따른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.

CD(91일)	1.540%	(0.0bp)
---------	--------	----------

[국고채]

1y	1.564%	(-1.3bp)
3y	1.716%	(-1.9bp)

5y	1.960%	(+3.0bp)
10y	2.255%	(+5.5bp)
20y	2.260%	(+6.5bp)
30y	2.242%	(+5.6bp)
50y	2.237%	(+5.6bp)

[통안채]

1y	1.5490%	(-1.6bp)
2y	1.6770%	(-1.3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4.90bp	(+2.1bp)
2y	-13.45bp	(+1.1bp)
3y	-10.35bp	(+2.9bp)
5y	-22.75bp	(-1.0bp)
10y	-33.00bp	(-1.0bp)

8. IRS/CRS 동향

*IRS- 미 채권금리 상승으로 국채선물이 약세를 보이자 IRS금리가 상승함. 증권사의 구조화 물량으로 장기물 관련 거래가 많았음.

*CRS- 달러-원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CRS금리도 변동 폭이 작았음. 보험권 내 혼조세를 보임.

*IRS 금리

1Y	1.5000%	(+0.5bp)
2Y	1.5425%	(+0.5bp)
3Y	1.6125%	(+1.00bp)
5Y	1.7325%	(+2.00bp)
7Y	1.8125%	(+3.25bp)
10Y	1.9250%	(+4.50bp)

1*2Y	4.25	(0.00bp)
2*3Y	7.00	(+0.5bp)
2*5Y	19.00	(+1.50bp)
3*5Y	12.00	(+1.00bp)
5*7Y	8.00	(+1.25bp)
5*10Y	19.25	(+2.50bp)

*CRS 금리

1Y	1.1400%	(+1.50bp)
2Y	1.2200%	(-0.50bp)
3Y	1.3150%	(0.00bp)
5Y	1.3900%	(+0.50bp)
7Y	1.3950%	(+0.50bp)
10Y	1.3850%	(+0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, 트럼프 'F-35 너무 비싸다' 발언에 4% 급락

* EU, 日업체에 충전지 담합 1.6억유로 벌금...삼성, 자진신고로 면제

* 日 와타나베 부인 눈물의 한 해..."돈 번 투자자 30%뿐"

- 일본의 개인 FX마진 투자자 '와타나베 부인'들이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와 영국의 유럽연합(EU) 탈퇴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여파로 고난의 한 해를 보내
-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인 투자자가 30%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2012년 11월 아베노믹스 장세가 시작된 이후 가장 힘든 일 년이 된 것으로 보여

* 시장은 잠잠한데 '공포지수' 거래 급증...변동성의 역설 <WSJ>

- 투자자들이 시장 혼란기에 단기 차익을 노렸기 때문

* 글로벌 외환 거래량 감소...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<BIS>

-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매매 감소로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어

* 월가, 트럼프 특수에 환호...거래량 급증 <FT>

- 미국 대선 이후 금융 자산의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늘어 투자은행 실적에 청신호
-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(FINRA)에 따르면 지난달 초 대선 이후 단 7거래일 동안 투자 등급인 채권이 200억 달러(약 23조 원)어치 넘게 거래

[국내]

* 진웅섭 "외국인 탄핵 이후 채권 순투자...단기유출 우려 작아"

* 진웅섭 금감원장 "채권 쏠림현상 스스로 경계해야"

* 진웅섭 "채권시장 필요시 신속·과감 조치"

****금일 예정 지표****

[美 FOMC 1일차]

한국-11월 수출가격지수(YoY) (이전:-1.6%)

-11월 수입가격지수(YoY) (이전:-0.6%)

미국-11월 NFIB소기업낙관지수 (이전:94.9, 예상:96.7)

-11월 수출가격지수(MoM) (이전:0.2%, 예상:-0.2%)

-11월 수입가격지수(MoM) (이전:0.5%, 예상:-0.4%)

중국-11월 고정자산투자(YoY) (이전:8.3%, 예상:8.3%)

-11월 산업생산(YoY) (이전:6.1%, 예상:6.1%)

-11월 소매판매(YoY) (이전:10.0%, 예상:10.1%)

영국-11월 CPI(MoM) (이전:0.1%, 예상:0.2%)

독일-11월 CPI(MoM) (이전:0.1%, 예상:0.1%)

-12월 ZEW경기신뢰지수 (이전:13.8, 예상:14.0)
